



삼성전자 휴대폰, 미국 판매 1억대 넘었다

삼성전자(www.sec.co.kr 대표 이기태) 휴대폰이 미국 진출 10년 만에 누적 판매 1억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1997년 삼성전자 미국통신법인(STA)을 설립, 미국 스포린트사에 CDMA 휴대폰을 처음 수출한 이래 10년 만에 미국 시장에서 누적판매 1억대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삼성전자 휴대폰이 특정국가에서 1억대 판매를 돌파한 것은 미국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법인설립 10주년 1억대 판매'를 기념하기 위해 뉴욕 JFK 공항과 달라스 공항 내에 감사메시지 광고를 게시하는 한편, 대형 휴대폰 충전소를 마련해 고객들에게 무료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 파병에서 돌아오는 미군들이 달라스 공항 도착 즉시 가족이나 연인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삼성전자 휴대폰이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1억대를 기록한 것은 미국인(2006년 10월 3억 명 돌파) 3명 중 1명꼴로 삼성 휴대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LG전자, 북미에 세계 최초 PTT 지원 3G폰 공급

LG전자(www.lge.com 대표 김쌍수)는 지난달 14일 세계 최초로 PTT(Push To Talk)기능을 지원하는 3G폰(모델명: LG-CU400)을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싱귤러 와이어리스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이번에 공급하는 'LG-CU400' 모델은 휴대폰과 무전기를 하나로 통합한 PTT기능을 탑재, 버튼 하나만 누르면 친구와 가족, 직장동료 등 근거리의 상대방과 최대 30명까지 동시통화가 가능하다.



컴팩트한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휴대성을 높인 이 제품은 싱귤러의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해 손쉽게 엔터테인먼트와 뉴스, 게임 등의 동영상 데이터 서비스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싱귤러 비디오 서비스에 접속, 최근 뉴스와 스포츠 결과, 날씨 등을 간편하게 검색해 볼 수 있

는 이 제품은 야후와 핫메일, AOL, AIM 등의 이메일 서비스를 지원하며, AIM, MSN, 야후 등 인스턴트 메신저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카메라와 캠코더, 블루투스, 스피커폰, 음성 녹음, 멀티태스킹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들도 내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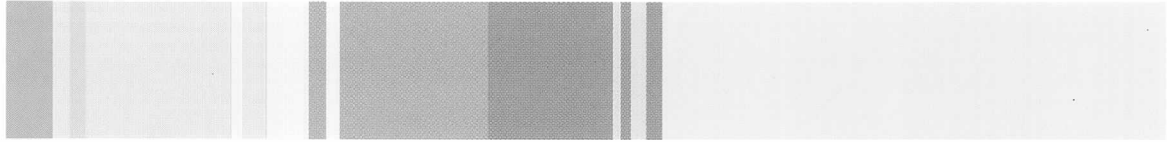


SKT, 무선인터넷 요금 대폭 인하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김신배)은 지난달 26일, 무선인터넷 요금인하와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무선인터넷 관련 CV(고객가치)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보다 저렴하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보호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보다 건전한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 종량요금을 각각 30% 인하하기로 하고 텍스트 6.5원 → 4.55원으로, 소용량 멀티미디어 2.5원 → 1.75 원으로, 대용량 멀티미디어 1.3원 → 0.9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청소년들이 무선인터넷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제인 '팅 데이터프리' 요금제를 출시했다.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는 이 요금제는 무선인터넷을 월



정액 2만 6000원에 이용하던 '데이터세이프' 요금제 대신 30% 인하된 1만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액제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무심결에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다량의 데이터통화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추어 데이터통화료 1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기로 혜택범위를 넓혔다.



코스콤, 차세대시스템 내달부터 본격 개통

코스콤(대표 이종규)이 자사의 차세대시스템인 '파워베이스' 1차 개통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파워베이스'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49개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코스콤의 차세대 IT아웃소싱 시스템 차기 버전으로 현재 운영중인 '베이스2'의 후속모델이로, 새 버전에서는 다운사이징, 증권사 특화된 프레임워크 개발 등과 함께 정보계 부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이 크게 개선된다. 코스콤에 따르면, 서비스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49개사에서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통되게 된다. 1차 적용 대상은 한양증권으로 이달 22일로 개통 된다. 한양증권은 최근 1차 테스트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달 초 2차 테스트에 돌입할 계획이다.



포스데이타, 원자력안전기술원 정보화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포스데이타(www.posdata.co.kr 대표 유병창)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추진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약 50여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IT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객만

족도 및 내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기술원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데이타는 KINS와 이달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마무리 짓고, 오는 2008년 6월까지 원자력시설 및 방사선안전 규제관리, 연구과제관리 등 KINS의 3대 핵심사업과 관련된 안전규제시스템과 경영관리,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등 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스카이, 위성DMB폰 '토이바' 출시



스카이(대표 팬택계열 내수총괄 김일중 사장)는 위성DMB 기능에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결합된 '토이바

(Toy Bar)'를 SK텔레콤(모델명: IM-R110)으로 출시한다.

로테이트 타입의 LCD를 옆으로 돌릴 경우, 화면이 자동적으로 가로로 대응하는 '스마트 뷰' 기능을 채택한 이 모델은 위성DMB를 포함해 영상통화와 게임,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모델은 또 200만 화소 카메라와 상대방 얼굴을 인식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내장, 촬영 시 자리를 이동하거나 카메라 렌즈를 줌인(Zoom in) 또는 줌 아웃(Zoom out)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유선형 곡선 타입의 간결한 디자인으로 '그립감'을 극대화 했으며, LCD밑에 원형 조그셔틀을 탑재해 메뉴 이동의 편리성을 높였다.



LG '샤인폰', 한글 입었다

LG전자(www.lge.com 대표 김쌍수)는 지난달 19일 샤인폰에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가 디자인한 한글 문양을 입힌 '샤인 디자이너스 에디션 (Shine Designer's Edition)'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샤인 디자이너스 에디션에는 휴대폰 뒷면에 운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 원문이 새겨져 있다. 휴대폰을 비롯한 IT기기에 한글 디자인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샤인 디자이너스 에디션 출시를 기념, 19일 서울 삼성각에서 각국의 대사를 포함해 유명 연예인과 언론인,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 샤인폰 위를 걷다'라는 제목의 패션쇼 형태의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



아이콜스, 수달앤컴퍼니 게임 퍼블리싱 계약

최근 신지소프트를 인수한 아이콜스가 이번엔 신생 온라인 게임업체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도 함께 인수했다.

아이콜스(www.icols.co.kr 각자대표 이승훈·박권)는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 수달앤컴퍼니와 리듬액션게임 '스트로커'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인기 장르인 리듬액션게임 스트로커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미디 (midi: Music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를 활용,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원제공이 가능해 UCC 형태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합주 기능이 추가돼 여러 유저가 함께 연주하는 게임 커뮤니티성이 강화됐고, 속도와 음 조절이 자유로워 초보유저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계약으로 아이콜스는 스트로커에 대한 국내·외 판권을 확보했으며, 수달앤컴퍼니의 윤준희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 등 51%의 지분을 인수, 자사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삼성네트웍스, 필리핀 수빅조선소 IT인프라 구축

삼성네트웍스(www.samsungnetworks.co.kr 대표 박양규)가 한진중공업이 건설 중인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네트워크 및 통합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삼성네트웍스는 네트워크 부분에서 백본망을 비롯한 전체 네트워크와 VoIP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며, 보안 분야에서는 출입관리시스템과 전자감응장치,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업무용 네트워크의 경우 백본 스위치를 이중화함으로써 데이터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한진중공업 본사와 수빅조선소 사이에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신비용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안시스템은 인원·차량 등의 출입 허가에서부터 문서 유출 방지까지 모든 분야의 보안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조선소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통합관제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KT, IT서비스 분야 협력사 선정

KT(www.kt.co.kr 대표 남중수)는 지난달 22일 SM사업 분야에서 KT와 시너지를 창출할 우수 역량을 가진 쌍용정보통신, 포스데이터 등 IT서비스분야 30개 협력사를 선정 발표했다.

KT는 전문성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SI기업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발굴하기 위해 지난 10월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국내 73개 SI기업이 대거 참여해 제도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향후 KT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유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전문IT교육프로그램 자원, CMMI(국제품질인증) 인증 획득을 위해 사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기존 저가위주 수주의 현실화 및 전문기술분야 특화를 위한 금융지원정책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동반성장이 가능한 실질적인 파트너관계 정립을 위해 BP(Business Partner)관계문화 혁신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기태 사장, '한국 CEO 그랑프리 대상' 수상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CEO 그랑프리'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CEO 연구포럼(명예이사장 이현재 전총리)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상을 비롯해 업종별 11개 부문상과 5개 부문 특별상이 수여됐다.

한국CEO 연구포럼은 "무한경쟁시대에 CEO들의 창의적 노력과 기여가 없으면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공정한 연구와 평가 작업으로 '바람직하고 탁월하며 자랑스러운 CEO'의 발굴과 사회적 조명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고 상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국CEO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한 이기태 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임직원 및 협력업체들의 노력과 고객들의 사랑으로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와이브로, 4G 같은 미래 기술과 창조적 경영으로 한국 IT 산업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SK텔레콤, 조직 개편·임원 인사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김신배)은 22일 기존 3총괄7부문 58본부에서 1총괄 8부문 62본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조직개편 및 임원보직 인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사 역량을 성장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회사 사업구조를 ▲ 기존 네트워크 기반의 국내 사업(마케팅부문 + 네트워크부문) ▲ 신규, 글로벌을 중심으로 한 성장사업(신규사업부문 + 인터넷사업부문 + 중국사업부문) ▲ 경영전략과 성과관리/자원배분의 기능을 통합(Corporate Center)하는 형태로 재편했다. 윤리경영센터, 전략기술부문은 기존대로 유지된다.